

가키노시마 유적

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에 있는 가키노시마 유적은 기원전 7,000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입니다. 발굴 작업을 통해 선사 시대 6,000 년 이상에 걸친 출토품과 무덤 구덩이,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사회적, 문화적, 정신적 발전을 보여주는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선사 시대 일본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유적과 인접한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[링크]에서는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함과 동시에, 선사 시대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

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의 발달

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은 조몬 시대(기원전 13,000 년~기원전 400 년) 사이에 크게 발전했습니다. 기원전 7,000 년경부터 무덤은 마을 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. 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거주지와 무덤지가 분리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. 이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 구덩이 중 일부는 기원전 5,000 년~4,500 년의 것입니다.

희귀한 부장품

가키노시마 유적의 무덤 구덩이에는 다양한 부장품이 함께 매장되었는데, 그중에는 발 모양이 달린 토판(판 모양의 토제품)도 있습니다. 기원전 5,000 년~4,500 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새끼줄 문양(조몬, 縄文)이 있고 1~2 개의 발 모양이 달려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발 모양은 6~18cm 로 아마도 아이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대편 면에 손 모양이 달린 토판도 있습니다.

U자형 성토

이 유적에는 커다란 U 자형의 성토(흙무지)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대량의 토기와 석기, 동물의 뼈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. 이 성토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와 토양에서는 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, 이는 이곳에서 불이 피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또한 성토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땅에 도랑을 판 흔적은 U 자형의 중앙부분으로 이어지는 길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외에도 성토의 중앙부분에서는 갈돌, 검 등의 제사용 도구가 포함된 작은 흙 무더기가 발견되었는데, 이를 통해 이 성토에서 장례식 등의 의식을 행하고 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기원전 3,000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토는 아마도 수백 년에 걸쳐 축조된

것으로 보입니다. 길이는 190m 이상, 너비는 120m 이며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이 2m 에 달합니다.

토기

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.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는 바닥 부분이 뾰족하고 흙반죽에 조개껍데기를 눌러 붙인 듯한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. 좀 더 시기가 지나면 정교한 장식과 주홍색 칠이 특징인 옷칠 주구토기(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부리가 달려 있는 토기)와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복잡한 모양의 향로형 토기가 나타납니다. 이러한 출토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고도의 토기 제작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

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[링크]에는 가키노시마 유적, 오후네 유적[링크](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 분) 등 이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가장 높이 평가되는 출토품은 내부가 비어 있는 ‘중공 토우’입니다. 이 토우는 채소밭을 일구던 여성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. 이 토우는 복잡한 디자인과 섬세한 문양, 광택있는 마감, 그리고 뛰어난 보존 상태로 고고학자와 미술사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. 국보로 지정된 이 토우는 도쿄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대영박물관,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전 세계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.

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에서는 전시 외에도 뜨개질이나 토기 등 선사 시대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센터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.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.

관련 유적

오후네 유적[링크]은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있습니다.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커다란 수혈식 건물의 토대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외에 홋카이도에 있는 다른 유적으로는 대형 패총(조개무지)이 발견된 이리에-다카사고 패총[링크]과 기타코가네 패총, 삿포로 근처에 위치한 기우스 주제묘군[링크]이 있습니다.